

지역사찰·직장단체 연합 전폭 지원

성남시청 불자회 창립 도와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의 창립과정이 지역 사찰과 재가불자, 상급 직장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져 귀감이 되고 있다.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5월 7일 성남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4월 초 정토사 주지 보광 스님의 주선으로 성남시청 불자 5명과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 관계자 등이 창립 준비모임을 연지 한달만의 성과다.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이날 창립되기까지 2년여의 자제적인 준비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50여명의 회원 가입 희망자를 모집하고도 창립이 여의지 않았다. 법회를 집전할 수 있는 회원이 없고 창립절차, 지역사찰과 연계방법 등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원들은 막연히 불교가 좋아서

가입한 '정서적인 불자'가 전부였다.

그러나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자체적으로 모든 창립 준비를 해왔던 여느 직장불교 단체들의 창립과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역불교계와 공불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손쉽게 창립하게 된 것. 창립을 준비를 해왔음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보광 스님과 청계사 회주 종상, 주지 성행 스님, 봉곡사 주지 효관 스님, 성남불교사모연합회장 지관 스님, 인선교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지부장, 송병욱 前 해군법사, 성남불교산악회 등 지역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비롯해 공무원불자회 연합단체인 공불련 창립을 돕고 나섰다.

지역불교계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네 차례의 모임을 열고 창립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향후 법회지원, 주요 관계자 면담 등을 성사시켰고, 공불련은 회칙

제정, 초청인사 선정 등을 지원했다.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이들의 협조 아래 회원 확보와 법회 참가 등을 독려해 5월 7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이날 김인규 건설교통부장관을 회장으로, 김병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창립을 도운 지역불교계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증명, 지도법사와 지도위원으로 각각 추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로 했다.

보광 스님은 "지역 관공서의 공무원 불자회가 결성되면 결과적으로 관공서 내 종교활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찰과 불자들이 혜택을 받는다"며 "아직도 공무원불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불자회 창립을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통도사서 KBS 열린음악회

안산 통도사(주지 현문)에서 신도 등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 10일 KBS 열린음악회가 열렸다. 부처님오신날인 15일 KBS 전파를 탄 '열린음악회'에는 테이 마야 장운정 별 조은 이지연 김영미 등이 출연해 부처님 오신 기쁨을 함께 나눴다. 천미희 기자

법륜사 약사여래삼존불 점안



서울 서구동 법륜사(주지 보경)는 5월 8일 약사대불전을 마련하고 약사여래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륜사 뒤뜰에 조성된 노천법당인 약사대불전에서 봉행된 점안식에는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원명선원장 원명 스님을 비롯 법륜사 한주 지묵,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김상사 지장전은 등 2천여 명이 동참했다. 조홍수 기자

"살아있는 지장보살 되라"

5월 8일 맑고황기롭게 근분도량 길상사 지장전 점안 및 낙성법회에서 맑고황기롭게 대표 법정 스님이 '살아있는 지장보살' 법문을 했다.

2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법정 스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세월의 비바람에 휘둘러지고 썩지만, 우리는 세월의 비바람에 허물어지지 않을 지장전을 각자 마음속에 세워야 한다"며 "자비의 힘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달아 지장보살의 비원을 각자 마음속에 새겨서 살아있는 지장보살이 되자"고 강조했다.

김상사 지장전은 등 2천여명, 지하1층, 연건평 460평 규모다. 박봉영 기자

장애아동 전문 불교어린이집 개원

청주 보현사 무료운영

청주 보현사(주지 원봉)는 상당구 울랑동에 장애아동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현어린이집을 건립하고 4월 30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보현사 주지이자

태고종 복지위원장 원봉 스님과 청주불교방송사장 지원 스님, 청주청원사암연합회장 각의 스님, 한대수 청주시장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석했다.

150여 명의 보현어린이집은 전문특수교육, 언어치료·물리치료·심리치료 등 각종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역 장애인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보현의 집 이용은 무료이며, 일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종일반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보현사가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보리수어린이집 바로 옆에 보현의 집을 건립하고 두 시설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해 장애아동과 일반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명우 기자

화마에 휩쓸린 후 첫 초파일 낙산사에 쓸쓸함만...

5월 6일 늦은 오후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지 꼭 한 달이 지난 낙산사는 하루 종일 내린 불비 말고는 찾는 이가 거의 없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사찰치고는 적막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경내 곳곳에 연등이 설치돼 있기는 했지만 예년에 볼 수 있었던 연꽃등은 찾아볼 수 없다. 겨우내 만들어 원통보전 옆 무설전에 보관해 놓았던 연꽃등이 모두 타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설치돼 있는 주춧돌이 낙산사의 아픔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성금을 들고 찾아오던 이들의 발길도 열흘 전쯤부터는 거의 끊겼다.예년 같으면 하루 종일 관람객들과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1/3 수준이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낙산사를 찾는 이들이 단등은 큰 폭으로 줄었다. 5000여개의 등이 일주문에서부터 흥례문을 지나 경내 안까지 설치돼 있지만 등표가 달린 등 은 1/5도 채 되지 않았다. 검게 그을린 채 죽어있는 키 큰



검게 그을린 7층석탑에 봉축 연등이 걸렸다. 사진=고영배 기자

소나무들은 황량함을 더해주고 있다.

김득중 사무장은 "13년째 일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쓸쓸한 적은 없었다"며 "사찰 경관도 그렇고 아직 불안정하다 보니 찾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지원으로 모든 복구가 이뤄진다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성금이 크게 줄어들자 주지 정념 스님은 복구동원을 도움을 호소하는 안내문을 전국 사찰에 보내고 있지만 관심을 보이는 곳은 거의 없다. 불과 한 달 만에 낙산사는 벌써 잊혀져가고 있었다. 양양 낙산사=한명우 기자

목탁소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5월 8일 종로 일대에서 열린 '연등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문화 콘텐츠 부재가 역력했다.

조계사 앞길에서 펼쳐진 문화마당은 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는 볼거리가 없었다. 연등 만들기, 사찰음식 전시회, 수지점 자원봉사 등 굳이 대규모 봉축행사가 아니더라도 지역 불교축제 현장에서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었다. 처음 한국을 찾은 벽안의 이방인들에게는 한눈팔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매년 참가하는 내국인들에게는 식상할 뿐이다.

또한 봉축행사도 하나의 불교 축제

인데 행사 진행이 무척 경직했다는 인상이 강했다. 제등행진을 지켜보려는 시민들은, 원활한 행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곳곳에서 차단당했다. 외국인들은 편한자리에서 제등행진을 관람할 수 있어도 정작 불자들이 시민들은 인도에서 서서 비집고 행렬을 맞이해야 했다.

세계에는 유명한 축제들이 많다. 브라질의 삼바축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축제, 프랑스의 와인 축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 축제들에 세계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매년 충분한 볼거리와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 기념 연등축제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행복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하기 위해선 이제 행사 전반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할 때가 됐다. 김주일 기자

변해야 할 봉축 '콘텐츠'

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축제, 프랑스의 와인 축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 축제들에 세계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매년 충분한 볼거리와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 기념 연등축제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행복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하기 위해선 이제 행사 전반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할 때가 됐다. 김주일 기자

영동 중화사 5월말 시민선방 개원

충북 영동 중화사(주지 현구)는 15평 규모에 30~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민선방을 5월 말 개원한다.

비록 작은 규모지만 중화사 시민선방이 운영될 경우 충북지역 시민과 불자들의 참선수행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화사 시민선방은 일반 시민선방과는 달리 천도재 및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참선지도는 일주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7일간 참선 정진한 뒤 마지막 회향날 천도재를 지내게 된다.

이와 함께 큰스님 초청법회를 열고 다도나 붓글씨, 요가 등의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시민선방을 지역 민들의 수행·문화공간으로 가꿔나갈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청주 풍주사 '법등원 자등원' 낙성

청주 풍주사(회주 범추)는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일 경내에서 고서인 겸 요사채인 '법등원 자등원' 낙성식 및 6층 공덕탑 진신사리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또 관음전 보탑에 봉안돼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 15과 중 6과를 새로 조성된 6층 공덕탑에 봉안하고, 종각을 조성하는 등 기도도량으로서의 사격도 갖추게 됐다. 한명우 기자

충북불교총련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

충북북도불교총연합회(회장 도공)는 5월 6일 청주 명암타워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전 성공기원 및 도민안녕 기원법회를 겸한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연합회장 도공(범주사 주지) 스님·태고종 충북총무원장 월담 스님·청주청원사암연합회장 각의 스님, 이원종 충북도지사, 한대수 청주시장 등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명우 기자

부산 선암사 백양도예타운 문열어

북한 어린이들에게 신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점여불교운동본부(상임대표 해홍)가 부산의 청년고교인 선암사에 평생교육원 백양도예타운을 개원했다.

5월 8일 개원식을 연 백양도예타운은 6개월 과정의 도예직업훈련, 도예체험교실, 8주 과정의 도예문화교실 등을 운영하며 일반인들의 도예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 (051)808-0179 천미희 기자

광주 동산사 지장보살 봉안 점안식

경기도 광주 동산사(주지 법진)는 5월 11일 지장보살 봉안 점안식을 봉행했다.

법회는 지장보살 점안식 및 무진장 스님 법문과 영가천도재 및 가족집정소법기도 입재 순으로 진행됐다. (031)766-5661~2 남동우 기자

진주 여래사 지역어르신 경로잔치

진주 여래사(주지 동봉) 신도회는 4월 22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가수 주현미 베일호 등을 초청, 지역어르신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시민위안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진주불교사원연합회 해만 스님, 정영석 진주시장, 강석주 대한노인회 진주시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동봉 스님이 지난 1979년부터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이날은 어르신 위안 잔치에 앞서 오전에 진주교도소를 방문, 재소자를 위한 공연을 함께 펼쳐 그 의미를 더했다. 천미희 기자

천마산 중화사 청동범종 불사 모션문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고 부처님의 법을 등불삼아 그 가피를 힘입음을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연에 따라 만인 귀의의 목적인 승가람이 이룩됨으로써 육도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부처님의 광명이 삼계에 극히 어렵고 불사를 만나도 시주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청동범종을 주주하게 되었습니다. 범종에다 시주자의 이름을 새겨 역사의 흐름속에서 천추만대로 유전될 것이며 불생불멸의 영원한 종소리는 삼천대천세계까지 울려 퍼져 무간지옥의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밝게 비추고 국민민안과 호국불교 정신으로 신도님 여러분의 온갖 정성은 불교계의 중흥을 위한 깊은 원력의 발로이며 우리 신도님들의 총화단합으로 이루어진 범종은 우리의 자손만대까지 부처님의 자비의 선행이 같이하도록 은은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 신도님들은 이에 동참하시어 불사를 빛내주시고 그 인연공덕으로 암계의 지혜를 열어 영겁으로 무량한 광명과 복전을 누리시는 동시에 자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씨앗을 뿌려 불법의 해광이 깃들시기를 바라오며 이 불사가 원만회향 되도록 이웃과 친지에도 권유하시어 주시기를 거듭 비읍니다.

● 청동범종불사 동참방법

- 청동범종불사 동참금은 1인당 10만원이상으로 합니다.
- 청동범종불사 동참자는 금강경 사경을 함께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합니다.
- 세세생생 복전이 되고자 하는 불자임을 위한 특별 시주를 받습니다. 또한 청동범종불사에 동참하신 불자님의 이름을 영구히 새겨 공덕을 지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 동참계좌번호 : 농협 407014-51-007102(예금주 중화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천마산 중화사 주지 현구 합장 충북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32-1번지 043)742-2057